

학교생활

무단 지각 있으면 특목·자사고 지원 시 불리한가요?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해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 조금 늦게
등교한 적이 있어요. 조화가 시작된 뒤 교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껏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나이스에서 확인해보니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인정
지각 기록이 1차 서류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네요.

주시현 (가명, 43·서울 강남구 역삼동)

A 결석 외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감점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출결 상황 중 미인정 지각 1회는 특
목·자사고 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목·자사
고의 입시 1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중학교 교과 성적 외에
출결 점수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출결 점수는 중1 1학기부터
중3 1학기까지 전체 출결 상황과 중3 2학기 일부(2020년 11
월 20일까지 마감) 출결 상황으로 산출됩니다.

경기 외대부고 조경호 교사는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
인정 결과의 경우 3회 이하의 출결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다. 하지만 3회부터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돼 출결 점수
에서 감점 처리된다. 2회 이하의 점수 반영 없이 제외된다.
즉 미인정 결석만 감점 처리될 뿐 다른 것은 점수 반영이나
평가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미인정 지각 1회, 미인정 조퇴 1회인 경우 총 2회
이므로 미인정 결석 일수는 0일이 됩니다. 하지만 미인정 지
각 2회, 미인정 조퇴 2회인 경우는 총 4회이므로 미인정 결
석 1회로 계산됩니다. @

MORE TIP

특목·자사고 1단계 서류 전형에서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른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입니다. 단, 의사소견서나 진료 처방전을 제출할 경우
미인정이 아닌 질병 지각, 질병 조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며 이는 횟수에 상관없이 출결 상황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입시

면접일과 기말고사가 겹쳐요.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날짜와 대학 면접일이 겹칩니다. 이런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고 들었는데요. 하필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과목의 시험일과 면접일이 겹치네요. 이 경우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박은영(49·서울 양천구 목동)

A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 점수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인정 사유와 인정점의 비율 등은 소속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대학별 고사로 인해 결사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공결(인정 결석)로 처리돼 100% 인정점이 부여되고, 인정점 산출은 학교에 따라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과 난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 점수 비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아 인정점 계산을 위한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방식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점수가 있다면 이를 기준 점수로 활용합니다.

수행평가 점수도 없다면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 해당 학생의 같은 교과(군)의 유사 과목 점수, 동일 학기 동일 과목의 평균 점수, 동일 학기 전 과목 평균 점수 등을 활용해 인정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MORE TIP

인정 사유와 인정 비율은 동일하지만 그 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없는 사항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우리 학교는 지필평가만 보는 과목을 중간·기말 모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결시 교과목의 평균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한 과목의 경우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모두 결사하면 교과별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고 전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